

하이패션에 나타난 패션구두의 조형성

이 효 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ormativeness of the Fashion Shoes in High Fashion

Hyo-Jin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 8. 4, 심사(수정)일: 2009. 9. 28, 게재확정일: 2009. 11. 2)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formativeness of women fashion shoes shown in the high fashion since 2000 along with the necessity of study for such purposes. Fashion shoes designed for the perfection of high fashion have been positioned as an important item to increase the value of fashion. Subsequently, three formative images through the research method under the literature study could be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Fetishism image appeared from 18th century and the shoe heel has the erotic internal beauty while attracting the erotic n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feet confinement'. The high heel came to have an absolute relationship with the feminine beauty, and the feet and shoes are accepted for the erotic symbol regardless of anyone in the East or West. Second, the fashion shoes in the Maximalism image to pursue for the dream and excitement at the same time have been shown at the same time by using various ornaments in an exaggerated manner for the use of ornaments to clothes through designs by shoe designers. Third, the Aristocratism image in the fashion shoes was remarkably highlighted with the use of materials from processing natural materials with the best quality, which was expressed in an exotic manner with roughness and comfort despite the nature of refinement balanced with the simple reactionary tendency and technical senses of handicrafts. It can be perceived that the inner emotions of human beings are expressed by intentionally dismantling the functions of shoes in terms of functionality even in the fashion shoes in completing the ideal images after which are pursued by people.

Key words: fashion shoes(패션구두), fetishism image(페티시즘 이미지),
maximalism image(맥시멀리즘 이미지), aristocratism image(귀족주의 이미지),
shoes designer(구두 디자이너)

I. 서론

역사적으로 신발은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종교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패션 아이템¹⁾으로써 역사를 통해 볼 때, 특정 형태의 신발을 소유하는 것은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자, 특정한 정치색을 표출하는 도구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던 신발은 현대에 들어 그 의미가 확대되어 청춘에서 결혼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삶의 주요한 사건들을 축하하는데 의미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람의 감정과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매체가 되어왔다.²⁾

신발은 굽의 발명으로 인해 가장 큰 유행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특히 발등을 덮는 폐쇄 형식의 굽이 높은 신발인 구두(shoes)는 귀족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 상징의 수단이자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구두의 상징성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와 「분홍신」 등의 동화를 통해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³⁾ 또한 20세기 이후 여성들의 구두는 구두 굽의 높이에 따라 여자들의 자존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구두의 굽이 높아질수록 가슴과 엉덩이 부분이 나오고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며 가슴이 퍼지면 기체가 당당해진다고 하여 신분이 높을수록 굽을 높혀 신었다.

2000년 이후 패션에 있어서 액세서리의 전성시대가 계속되면서 여성 하이패션에서의 구두는 단순한 필수품이 아니라 패션의 완성을 위해 진정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되었다. 이에 하이패션에 나타나는 패션구두의 유행은 옷을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패션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패션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의 패션구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패션구두에 내재된 인간의 감성에 대한 분석은 하이패션 디자인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구두의 역사와 복식사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둘째, 20세기 패션구두의 발전과 전개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에 내재

된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이후 하이패션에 나타난 패션구두의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여성들이 구두를 통하여 표출하고자 하는 개성과 인간적 희망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해 구두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구두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였다. 또한 하이패션에 나타난 여성들의 패션구두의 조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컬렉션을 다룬 컬렉션지와 패션사이트를 참고로 시각자료를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진 설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5명의 세 차례 검증을 거쳐 사진을 선택하였으며,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디자이너, 년도의 분포를 고르게 하였다.

II. 구두의 역사와 복식사적 의미

본 장에서는 패션구두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대부터 19세기까지 구두의 역사를 고찰하여 구두가 갖는 복식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구두는 발등을 덮는 폐쇄형 신발의 일종이므로 구두의 원류를 찾기 위해 먼저 신발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족의(足衣)의 일종으로 옷과 마찬가지로 기후, 풍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신발은 신분, 재산, 사상 등을 반영하며 복식과 함께 변화하였으며 길이와 폭의 증감, 재료의 다양화, 장식성이라는 면에서 유행을 만들어 나갔다.

신발의 기원은 불분명하나 최초의 신발은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의 그림 속에 등장한 신발로서 샌들(sandal)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⁴⁾ 샌들은 가죽 끈으로 연결하거나 발 부위를 많이 노출시킨 신발 형태를 말한다. 주로 발가락과 뒤꿈치 부분을 노출시키고 가죽끈과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방형 신발의 일종으로 이집트에서 샌들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왕족과 일부 특권층에서만 착용되었다. 이 당시의 샌들은 행사나 의식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집트 투탄카문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보석이 장식되어 있는

샌들이 의식용 샌들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적들의 모습이 새겨진 샌들은 왕이 걸을 때 적을 짓밟는다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집트에서 샌들을 만드는 것은 커다란 사업이었으며, 샌들 제조공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들 자신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⁵⁾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신발 착용은 노예와 자유민의 구별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맨발은 비천함을 표시하여 노예의 신발 착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며, 로마에서는 복식과 마찬가지로 신발의 스타일이나 색상으로 계급을 구분하였다.⁶⁾

비잔틴 시대에는 동양풍의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장판지까지 올라오는 부츠와 구두를 착용하였으며⁷⁾, 긴 튜닉을 많이 입었던 11세기 말에는 귀족들이 다리에 띠를 감지 않았던 반면 평민들은 짧은 튜닉과 함께 계속 다리에 띠를 감는 형태의 신발을 착용하는 등 신분에 따라 신발의 모양과 착용형태에 차이가 있었다.⁸⁾

14세기 여성복식은 거의 발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용 구두의 형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남성들의 것과 비슷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중세에는 앞부리가 뾰족한 뿔렌느(poulaine)란 신발이 소개되었는데, 발끝에서 6인치나 뾰족하게 앞으로 나와 있었던 이 구두는 유한계급의 사람들이 착용하였으며 앞부리의 길이로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다.⁹⁾ 이 시대 뿔렌느의 뾰족한 앞부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길었으며 앞부리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고래수염을 넣어 보강하기도 하였다.¹⁰⁾ 또한 몇몇 기록에는 뿔렌느의 앞부리 길이가 길어 사슬로 무릎에 붙들어 매야 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다.¹¹⁾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구두 굽의 발명은 구두의 혁신적인 변화로 가장 극적인 유행의 변화 중 하나를 가져왔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쇼핀(chopines)은 최초로 나타났던 굽 높은 신발로써 부유한 여인들과 매춘부들이 주로 착용하였다. 구두의 굽은 근본적으로 비와 눈, 진흙 등으로 인해 스커트 자락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높이가

20cm에 이를 정도로 높은 굽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쇼핀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을 하였으며,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굽의 높이가 45cm에 달하는 높은 굽이 나타나는 등 유럽전역에서 쇼핀의 인기가 지속되었다.¹²⁾ 특히 16세기 초의 쇼핀은 곰발이나 황소 주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발가락 부분을 과도하게 넓혀놓은 형태로 나타나거나 퍼프나 슬래쉬 등 당시에 유행했던 의복의 장식형태를 그대로 반영¹³⁾ 하는 등 전 시대와 차별화 되는 디자인, 의복과의 상호 디자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17세기 쇼핀의 대유행과 더불어 구두는 모든 유행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쇼핀을 착용하였으며 이 구두는 신분을 나타내는 귀족들의 전유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구두의 소재, 색상 및 굽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기도 하였는데, 초기에는 바닥 전체가 두꺼운 슬리퍼형이 등장하다가 차츰 뒤 굽 부분이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나 오늘날 하이힐의 원형이 되었다. 이 구두는 굽을 붙인 뒷부분은 굽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져 끝이 뾰족한 형태로 루이 왕조시대에 유행하여 루이 힐(Louis heel)이라고 명명되었다. 루이 힐이 유행하였던 루이 왕조 시대의 프랑스에서는 굽 있는 신발을 발레에서도 사용하였다. 그 시대의 발레에서는 굽 있는 구두가 발레의 동작을 발전시켰고 지금의 구두 형태로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 굽은 키를 커보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 인해 남자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예로 태양왕으로 불리었던 루이 14세는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 5인치의 힐의 구두를 신었다고 한다. 대체로 여성들의 신발은 남성들의 것에 비해 색깔이 다채롭고, 가벼웠으며, 새틴 등의 소재로 만든 구두가 인기를 끌었다.¹⁴⁾

18세기의 신발은 부를 표현하는 것과 함께 특정한 정치색을 표출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높은 굽에 발목을 죄는 신발이 대유행이었다. 이 유행은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1780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에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실용성과 애국심이 강조된 평평하고 굽이 없으며 단순한 끈이나 프랑스

<표 1> 20세기 이전 구두의 역사와 복식사적 의미

구분	상징성	주요아이템	특징	
고대 이집트	부와 권력의 상징 주술적 의미	샌들	· 행사나 의식에 주로 사용 · 신발에 적의 모습을 새겨넣어 군인들의 사기진작	
고대 그리스·로마	신분 상징		· 신발의 착용여부 및 신발 스타일의 색상으로 계급 구분	
비잔틴	신분 상징	보석으로 장식된 부츠	· 모양과 착용형태에 따라 신분 구분 · 착용하는 의복의 길이가 신발스타일에 영향을 미침	
14세기	계급 표현	뿔렌느	· 뾰족한 앞부리의 길이로 신분표현	
16세기	계급·지위표현 미적인 욕구표현	쇼핀	· 구두굽의 등장 · 유럽전역에서 남녀 모두에게 높은 굽이 유행 · 의복과의 상호 디자인 교류를 소재, 색상, 굽 높이가 다양화 시도	
17세기	미의식 상징	투이힐	· 구두 굽은 키를 커보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 남자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짐 · 성별에 따라 디자인 색채, 소재등의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하며 여성들의 구두가 더 화려해짐	
18세기	초·중반	부의 상징	높은 굽의 발목을 죄는 부츠	
	후반	부의 상징 애국심 정치적 성향 상징	리본으로 조인 형태의 신발 평평한 굽의 샌들	· 국가의 상징색 사용 · 비단이나 린넨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고 자수 등으로 장식 · 실용성의 추구로 구두 굽이 납작해짐
19세기	초반	미의식 상징	슬리퍼, 샌들	· 신고전주의의 모드 의상의 영향으로 굽이 없는 슬리퍼 형태의 신발 유행
	중·후반		단화, 앵글부츠	· 스커트의 길이와 형태변화에 의해 구두의 발목 길이 및 디자인 변화

의 상징인 붉은색, 흰색, 파란색 리본으로 조이는 형태의 신발이 새롭게 유행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여성들은 대부분 구두 앞이 뾰족한 하이힐을 착용하였는데, 비단이나 린넨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고 자수 등으로 장식되었으며 이 구두는 짧은 후프 스커트와 더불어 유행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여성복식은 도덕적·물리적 측면 모두 자유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18세기 후반 남성용 구두의 영향으로 구두 굽이 점점 납작해지다가 완전히 굽이 없는 평평한 샌들로 변했다.¹⁵⁾

19세기의 패션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신고전주의적인 모드의 의상을 고집하였으며 계속해서 샌들을 신었다. 그러나 1800년 이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신발 형태는 굽이 없고 양 옆이 낮으며 새틴이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간단한 슬리퍼(slipper)였다. 슬리퍼는

끈이 달려 있거나 발에 걸치기 위한 어떤 장식도 없는, 단지 발을 미끄러뜨려 쉽게 신고 벗게 만든 신발의 일종으로 앞부리가 둥글고 짧았으며 종종 작은 리본 매듭이나 자수를 놓은 패널로 장식되어 있었다.¹⁶⁾

여성패션이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행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1820년부터 1822년 사이였다. 낭만주의 시대 여성복 스커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짧아진 스커트의 길이로 보통 발목에서부터 발등 까지 내려왔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장판지 까지 올라오는 짧은 것들도 있었다. 스커트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신발이 눈에 잘 띄었다. 여성들은 1820년까지 모든 경우에 굽이 없는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었으나 그 이후로는 외출용으로 펌프스나 앵글부츠를 즐겨 신었다.¹⁷⁾

19세기 중반 크리놀린의 발명으로 여성들의 스커

트가 적당한 높이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출된 발목을 가리기 위해 굽이 있고 끈으로 묶어 신는 부츠를 신게 되면서 새로운 부츠 패션이 유래하였다.¹⁸⁾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이전 구두의 역사와 복식사적 의미는 <표 1>과 같다. 이를 토대로 사람들은 구두를 통해서 계급이나 지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하였으며, 또한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구두를 통해서 신분보다는 미적욕구를 다양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 패션구두는 하이패션과 더불어 그 시대의 패션 트렌드를 추측할 수 있을 만큼 패션에 있어서 비중 있는 아이템으로 발전해 왔다.

Ⅲ. 20세기 패션구두의 발전과 전개

20세기에는 여성용 바지의 등장, 코르셋의 거부, 미니스커트와 스포츠 패션 등 패션의 대중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혁명이 일어났다. 특히 스커트 길이 변화로 인한 여성들의 발 노출은 구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패션구두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패션구두는 20세기 하이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으므로 본 장에서는 20세기 하이패션의 변천과 그에 따른 패션구두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20세기 유명 디자이너들은 컬렉션에서 새로운 복식과 더불어 새로운 구두 디자인을 발표하면서 구두를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또 큰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이패션에 나타난 구두를 패션구두로 지칭하였다.

20세기 초, 하이패션과 대중패션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폴 포와레(Paul Poire)가 호블 스커트(Hobble skirt)를 발표한 것이었다. 그 후 1908년부터 스커트 길이가 발목을 드러내며 신발이 노출되자 장식적으로 레이스를 부츠에 부착¹⁹⁾하는 등 장식적인 구두가 대유행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10년대 스커트 단이 발목에서 2~3인치까지 올라가자 하이힐과 종아리 길이의 레이스로 장식된 부츠²⁰⁾를 착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920년대에 여성패션은 남성패션이 이미 백년 넘게 수용해 온 원칙들, 즉 기능성, 형태의 단순화 그리고 표면적인 장식의 거부라는 조직적인 구성 양식을 넘겨받아 실질적인 근대화를 이루기 시작하였다.²¹⁾ 1920년대 중반에는 여성의 자유와 독립이 가정의 행복보다 높이 평가되며 남녀평등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여성들은 가슴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여성스러운 바다라인을 감추기 위해 의복의 허리선이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하는 등 중성적인 매력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여성들의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감추어지자 여성들은 다리로 남성들을 유혹하였고²²⁾ 이에 따라 다리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구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일반적인 구두 스타일은 가죽 버클을 달거나 토 캡(toe cap)에 구멍을 뚫어 무늬를 만드는 정도의 간소한 스타일을 유지하였으므로 대부분 이브닝 웨어와 조화를 이루는 구두인 이브닝 슈즈를 화려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두를 장식하였다. 버클과 뒤 굽을 자라 등딱지로 만든 구두, 나전으로 만든 버클을 단 검은 염소가죽 구두, 장미 문양의 장식이 달린 에나멜가죽 구두, 토 캡을 타조깃털로 만든 구두, 에나멜 가공한 구두에서 순금장식을 단 구두까지 그 당시의 이브닝 슈즈는 매우 호화로웠다.²³⁾

1930년대 하이패션에서는 의복의 허리선이 제 위치로 정립되고 스커트 길이가 길어졌다. 스커트 길이가 점점 내려가면서 넓은 어깨와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미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나타나자 구두 디자인은 패션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볼품 없는 끈이 하나 달린 형태의 폐쇄형 구두인 코트 슈즈(court shoes)가 일상용 구두로 사용되었으며²⁴⁾ 이브닝드레스에는 의상과 조화된 가죽이나 옷감으로 제작된 샌들을 신었다. 또한 슬링백(sling-back) 구두가 인기를 끌었으며 앞부리가 트인 구두 디자인이 1931년 소개되기도 하였다. 1930년대의 대표적인 구두 디자이너로는 로저 비비에르(Roger Vivier)와 피네(Pinet)를 들 수 있다. 로저 비비에르는 최초로 플랫폼(platform)을 디자인 했으며²⁵⁾ 피네는 루이 힐보다 훨씬 가늘고 좁은 굽인 피네 힐을 고안하였다.²⁶⁾

1940년대 제2차 대전 기간은 패션의 암흑기로 모든 패션이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슈트는 보다 엄격한 모양을 하게 되었고 헤어스타일은 높이 올라갔으며 뽀족했던 구두 굽은 뭉툭해지고 모자는 좀더 그로테스크해졌다²⁷⁾.

2차 대전 중에 물자부족으로 실용계획안(Utility scheme)이 발표되자 일상복은 짧아지고 좁아졌으며 엄격해졌다. 이로 인해 유럽의 여성들은 있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옷과 모자, 신발을 직접 만들어야했다. 이 당시 나무와 코르크는 가죽이나 다른 소재보다 비교적 얻기가 쉬었으므로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 신발의 굽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특히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는 그 당시 사용되지 않던 삼베나 마닐라 섬유, 코르크 등을 굽 소재로 사용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코르크 굽 구두와 웨지힐(wedge sole)의 시초가 되었다.²⁸⁾ 이뿐만 아니라 페라가모는 1947년 투명한 비닐과 검정 웨이드로 만든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유명한 투명 구두(invisible shoes)를 고안하여²⁹⁾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이브닝 슈즈는 구두 끝을 둥글게 판 검은색의 플라멩고 구두(flamenco shoes)가 유행이었는데 앞이 많이 파져 구두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목 높이에 끈을 달아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³⁰⁾

1950년대는 패션산업이 크게 부흥했던 패션의 절정기로 모든 사회계층과 연령층에게 있어서 패션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관심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1947년 뉴룩(New look)의 발표로 인기를 끌었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 1950년대 '라인의 시대'를 이끌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토탈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드레스와 장갑, 구두의 색상 및 스타일의 조화 등 액세서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액세서리 산업과 디자인도 급속히 발달했다. 특히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까지 올라가 다리와 구두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구두와 스타킹이 전체 의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었으며 구두는 1950년대 유행을 선도하는 아이템으로 간주되었다. 구두 디자이너 로저 비비에르는 이 시기의 유명한 구두 디자이너로서 1953년 디올과 합작하여 오토쿠

튀르 컬렉션을 위한 맞춤구두를 제작하였는데 실용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디자인으로 유명 패션디자이너와 동등하게 평가된 최초의 구두 디자이너였다.

1950년대 남성 구두 스타일은 중세시대의 빨렌스를 연상시키는 앞부리가 길고 뽀족한 구두가 인기를 끌었으며 여성은 구두에 송곳처럼 뽀족한 굽을 붙인 스틸레토 힐(stiletto heel)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스틸레토 힐은 현대여성이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할 경우 빠져서는 안 되는 품목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³¹⁾

1960년대 패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니멀리즘, 옵아트, 팝아트 등의 예술사조의 영향, 우주에 대한 호기심, 사회전반을 주도하는 젊은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실험적이고 창의적이며 경쾌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패션은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디테일이 생략된 단순화된 스타일과 짧은 스커트나 점프 슈트 등이 트렌드를 이끌었다. 특히 미니스커트는 젊은 세대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전 세계적인 인기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옵아트의 영향으로 흑백의 기하학적 무늬가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또한 1964년 아폴로 13호의 달착륙으로 인해 '스페이스 룩(space look)'과 같은 미래주의 패션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니스커트와 우주 룩의 영향으로 이 시대는 다양한 부츠 스타일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특히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는 '납작한 굽의 부츠를 신어야만 땅과 현실에 접촉하게 된다'³²⁾라고 하며 하이힐 착용을 반대하며 젊은 여성들을 위해 흑백의 에나멜 가죽으로 만들어진 굽이 낮고 종아리까지 목이 올라오는 부츠, 미래주의 경향의 흰색·은색의 부츠를 디자인하는 등 다양한 부츠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이때부터 부츠는 계절과 장소를 막론하고 신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색상이나 소재, 장식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온갖 특이한 색깔에 꽃이나 별, 혹은 팝아트적인 무늬로 장식된 부츠를 신는 등 팝아트의 영향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는 부츠외에도 너무 높지 않은 편안한 굽에 앞부리 둥근 산뜻한 모습의 단화와 트랩 슈즈와 토 캡

(toe cap)이 넓게 올라오는 구두가 일상적인 신발로 신겨졌다.³³⁾

1970년대는 상업주의가 만연하고 개성이 존중되었던 시대로 1960년대의 모든 혁명적인 요소들이 더욱 대담한 형태로 표출되었다.³⁴⁾ 이 시대에는 각국의 민속의상을 소재로 한 페전트 스타일(peasant style)과 격식을 차리지 않은 편안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구두가 패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1960년대 말 미니스커트의 유행과 더불어 등장한 플랫폼 구두(platform shoes)는 '보기 흉할 만큼 창이 두꺼운 샌들로 정말 수수께끼 같은 패션의 이반이다. 이 통굽 구두만큼 불편하고 보기 흉한 신발은 찾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 그 인기가 정점에 달하였다.³⁵⁾ 또한 니사니오 발렌티노(Nisanio Valentino)와 찰스 주르당(Charles Jourdan)와 같은 구두 디자이너가 등장하면서 패션구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탈리아 구두 디자이너 니사니오 발렌티노는 앞부리가 뾰족하고 좁은 굽이 달린 우아한 구두를 선보였으며, 카르도니에의 제왕인 찰스 주르당은 1970년대 초, 굽이 낮고 앞부리가 사각진 코트 슈즈, 'Maxime'와 레드와 블랙 페이턴트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플랫폼 힐의 'Madly' 두 가지의 유명한 스타일을 제안하였다.³⁶⁾ 또한 1970년대 중반에는 금색의 유행과 더불어 금색 솔더백이나 지갑에 맞춰 금색구두나 부츠를 신는 것이 최신유행이 되기도 했다.

1980년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만능주의, 가속화되는 기계화에 대한 반발, 과거에 대한 향수로 인해 마약, 신흥종교 또는 전원생활과 같은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확산되었다. 또한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피트니스나 스포츠 참여 인구가 증가되었다. 특히 1980년대 여성들의 이상적인 바디라인으로 지나치게 마른 몸매가 아닌 건강한 바디라인이 인정받으면서 여성들도 피트니스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테니스화와 조깅화에 익숙해진 여성들은 굽 높은 펌프스와 하이힐 보다는 '걷는데 편한' 신발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대다수의 커리어우먼들은 정장차림에 스니커즈를 신는 실용성 위주의 스타일을

일상화시켰다.³⁷⁾ 굽이 없는 발레리나 구두, 굽이 낮은 웨지 힐이나 변형된 루이 힐이 달린 펌프스, 군화식의 루츠(roots), 여름용으로는 납작한 예수샌들, 겨울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가죽들을 한데 이어 붙여 만든 납작한 부츠와 같이 실용적이고 착용감이 편한 패션구두가 일상생활에 착용되었고, 하이힐은 주로 파티나 행사 등에서 카테일드레스나 이브닝드레스와 함께 우아함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였다.³⁸⁾

1990년대 중반부터 볼기 시작한 '평범 열기'와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스타의 영향은 패션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대중들에게 스타의 모습이 빈번히 노출되자 그들의 패션 스타일, 행동들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들은 패션 디자이너 못지않게 패션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패션의 아이콘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섹스 앤 시티>의 슈어홀릭(shoeaholic)에 걸렸던 여주인공 캐리는 마놀로 블라닉(Manolo Blahnik), 지미 추(Jimmy Choo)등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 구두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구두 디자이너로 패트릭 콕스(Patrick Cox),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 Westwood), 마놀로 블라닉 등을 들 수 있다. 패트릭 콕스는 고전적인 여성 구두에 체인 메쉬(chain mesh), 실크 프링지(silk fringe), 십자가 등의 재료를 재치 있게 조화시켜 구두 소재로 이용한 것으로 유명했고, 특히 평평하고 풍만한 느낌의 힐, 특히 지나치게 비례가 과장된 모양의 '워너비 로퍼(Wannabe Loafers)'는 이 시대 남녀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³⁹⁾ 또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93년 '앵글로마니아(anglomania)' 컬렉션에서 굽의 높이가 30cm가 넘는 검정색 페이턴트 가죽 플랫폼 구두를 선보임으로써 더 유명해졌다.⁴⁰⁾ 마놀로 블라닉은 1990년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들과 조우하여 컬렉션용 구두를 디자인한 사람으로서 컬러풀한 색상, 우아하고 유동적인 디자인 장식, 로고 장식의 가느다란 가죽 끈, 스틸레토 힐로 유명하다. 또한 대중스타가 선호하는 구두 디자이너로 더

〈표 2〉 20세기 패션스타일과 패션구두 경향 분석

시기	패션스타일	패션구두		
		경향	주요 아이템	조형적 특징
1910년대	· 폴포아래의 등장 · 스커트 길이가 짧아짐	· 신발이 노출되면서 장식이 많아짐	하이힐, 부츠	· 레이스 장식
1920년대	· 로우웨이스트 · 스커트 길이가 짧아져 다리가 노출됨	· 다리의 노출 증대로 구두의 역할 강조됨 · 일상용과 이브닝용으로 용도를 달리하여 착용함 · 용도에 따라 장식과 재료를 달리함	하이힐	· 일상용-가족버클, 구멍 등으로 간소하게 장식한 스타일 유지 · 이브닝용-자라겹질, 나전, 염소가죽, 타조깃털, 순금 장식, 애너멜 등의 소재 사용
1930년대	· 의복의 허리선이 재정립 ·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짐 · 전통적인 여성미를 강조하는 스타일	· 스커트의 길이의 영향으로 구두 디자인 발전 쇠퇴 · 로저 비비에르, 피네 등	코트 슈즈 슬링백 플랫폼	· 피네 힐 고안
1940년대	· 2차대전으로 인한 패션의 암흑기 도래 · 실용계획안	· 물자부족으로 인해 주변재료를 이용해 직접 신발을 제작함 · 살바토레 페라가모	웨이힐, 투명 구두, 플라멩고 구두	· 삼베, 마닐라 섬유, 코르크 등을 굽 소재로 사용 · 발목 끈으로 신발고정
1950년대	· 패션의 절정기 · 토털 코디네이션 강조	· 의상과의 색상 및 스타일의 조화 중요시 여김 · 다리의 노출 증대로 구두의 비중 확대 · 유행선도 아이টে็ม으로 간주됨	스틸레토힐	· 앞부리가 길고 뾰족한 스타일 · 송곳처럼 뾰족한 굽
1960년대	·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단순화된 스타일 추구 · 짧은 스커트, 점프슈트유행 · 스페이스룩 유행	· 미니스커트와 어울리는 어울리는 부츠 등장 · 앙드레구레주	플랫폼 슈즈, 부츠, 단화, 트랩슈즈	· 굽이 낮고 길이가 종아리까지 올라옴 · 흰색, 은색, 애너멜 등의 색상 및 소재 사용
1970년대	· 패전트 스타일 · 격식을 차리지 않은 스타일	· 70년대 초반 플랫폼 유행 · 7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하이힐이 등장하기도 함 · 니사니오 발렌티노, 찰스 주르당	플랫폼, 하이힐	· 70년대 중반 이후 앞부리가 뾰족하고 좁은 굽이 달린 구두 등장 · 금색유행
1980년대	· 스포츠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간편한 스타일 추구	· 걷는데 편한 신발 선호 · 정장차림에 스니커즈를 매치시키는 등 실용성과 착용감 위주 스타일 추구 · 이브닝용으로는 우아한 하이힐 추구	스니커즈, 웨지힐, 펌프스, 루츠, 예수샌들, 부츠	· 스포츠화의 유행 · 이브닝 드레스와 조화된 하이힐
1990년대	· 명품위주의 스타일 추구	· 대중매체 및 대중스타의 영향력 증대 · 패트릭 쿡스, 비비안웨스트우드, 마블로 블라닉등	킬힐, 워너비로퍼, 스틸레토힐	· 실크 프린지, 체인메쉬, 십자 등 다양한 재료 이용 · 다양한 굽의 등장

욱 주목받고 있으며, 마돈나(Madonna)의 '섹스보다 마블로가 좋다.'라는 말과 일본 드라마 <야마토 나데시코(やまとなでしこ)>에서도 여주인공 역시 마블로 블라닉의 구두 광으로 표현되는 등 대중매체로 인해

더욱 각광받고 있다. 특히 스틸레토 힐의 왕자라 불리는 마블로 블라닉은 실용성 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블라닉의 4인치 이상의 스틸레토 힐은 20세기말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신어보기를

원하는 '워너비 스타일(wanabe style)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블라니 역시 비비에르 마찬가지로 자신의 컬렉션을 열었으며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 여러 작업을 수행하였다.⁴¹⁾

영화평론가 심영섭이 '구두는 성적인 욕망, 허영심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듯이 현대의 여성들에게 패션구두는 차별화되고 싶은 욕구를 표출하는 매개체로써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되어왔다.⁴²⁾

이와 같이 20세기의 패션 스타일과 패션구두의 경향에 대하여 고찰한 바(표 2)를 토대로 20세기 하이패션과 패션구두는 당시의 패션트렌드를 이끄는 창조적 역할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치장 욕구 역시 구두를 통해서 지속되어 왔으며 현대에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IV. 21세기 하이패션의 패션구두 조형성

패션구두는 의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로서 그 안에 내재된 조형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페티시즘(Fetishism) 이미지

페티시(fetish)란 마술적 매력(magic charm)의 의미로서 작품, 인공물, 외관과의 표식을 위한 모든 노력을 뜻하며, 페티시즘(fetishism)은 종교적, 인류학적 의미로서 고대의 목각 제품이나 우상을 숭배했던 원시인들의 비이성적인 숭배를 의미한다.⁴³⁾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페티시즘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비성적인 물건, 성적 경향이 없는 인체부위, 의류 등을 필요로 하는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런 증상은 거의 남성에게 나타나며, 대부분 대상은 여체 또는 여성의류에 관련된 것이다.⁴⁴⁾ 복식에서의 페티시즘은 이성의 복식이나 특정 아이템에 성적 환상을 부여하고 관능적으로 연출하는 일련의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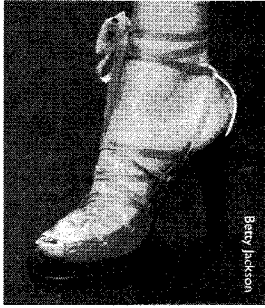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구두에 나타난 페티시즘 이미지를 구두의 높고 뾰족한 굽과 발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과 구두는 에로틱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하이힐은 속박된 발과 비교되어 여성미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⁴⁵⁾ 구두를 통한 페티시즘 이미지는 18세기부터 나타났는데 특히 구두 굽은 에로틱한 내적의미를 지녔으며, '발의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에로틱함을 유발시켰다. 하이힐은 여성미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발의 구속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져서 물신론자들에게 페셔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뾰족한 굽의 스티레토 힐은 여체를 축소한 듯한 모양으로 여성들의 분신처럼 여겨졌으며, 에로틱한 여성미의 극치를 상징하였다.⁴⁶⁾ 또한 날씬한 몸매를 갈망하는 것과 같이 날씬한 하이힐을 신음으로써 원하는 대로 키를 늘릴 수 있으므로 하이힐에 대한 환상은 결코 남성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까닭에 더욱 매력적으로 패션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대표적인 페티시즘 이미지의 구두인 <그림 1>⁴⁷⁾의 베티 잭슨(Betty Jackson)의 구두 디자인과 <그림 2>⁴⁸⁾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디자인 그리고 <그림 3>⁴⁹⁾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디자인의 경우, 발을 속박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다리가 묶인 상태는 더욱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페티시적 이미지가 부각됨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발은 원초적인 성적 상징이며 구두는 여체를 상징한다'고 했으며⁵⁰⁾ 미국의 작가 린다 손탁(Rinda Shontac)은 <유혹, 아름답고 잔인한 본능>이란 저서에서 '하이힐을 신는 것은 섹스어필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림 4>⁵¹⁾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구두 디자인과 <그림 5>⁵²⁾의 디스퀘어드(Dsquared) 구두 디자인, 그리고 <그림 6>⁵³⁾의 크리스찬 디올 구두 디자인의 경우, 과감한 디자인과 경쾌한 색상에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강렬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구두 굽에 송곳을 꽂은 것 같은 날카로운 힐을 통해서도 페티시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Betty Jackson, 2006 S/S, *FEM COLLECTION*, 2005, p. 252



〈그림 2〉 Jean Paul Gaultier, 2007-08 F/W, <http://www.style.co.kr>



〈그림 3〉 Christian Dior, 2009 S/S, <http://www.style.co.kr>



〈그림 4〉 Balenciaga, 2007 S/S, <http://www.style.co.kr>



〈그림 5〉 Dsquared, 2007-08 F/W, *동아TV COLLECTION*, 2007, p. 179



〈그림 6〉 Christian Dior, 2007-08 f/w, <http://www.style.co.kr>



〈그림 7〉 Balmain, 2009 F/W, <http://www.sty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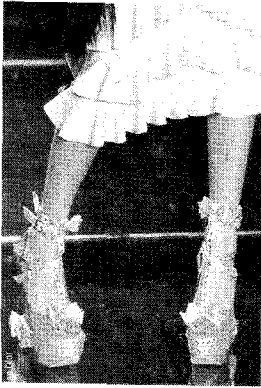
〈그림 7〉⁵⁴⁾은 발맹(Balmain)의 구두 디자인으로 페티시즘 이미지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지퍼를 구두의 표면을 덮은 것으로 이용하였다. 블랙과 거친 지퍼의 금속 날 소재로 발을 속박하는 의미로 페티시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이패션에 나타난 패션 구두에서 페티시즘 이미지를 살펴보면, 실루엣은 최근 새롭게 불리고 있는 하이힐 중에서 굽이 10cm가 넘는 킬힐과 같이 굽이 높고, 굽의 모양을 송곳과 같이 뾰족하게 하거나 구슬모양으로 다양하게 표현했으며, 글레디에이터 슈즈와 같이 스트랩을 변형한 형태와 레이스업(lace-up)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소재는 가죽, 메탈, 에나멜, 징, 스팅글 등이 사용되었으며, 색은 검정, 빨강, 핫핑크 등을 주조색으로 광택이 나는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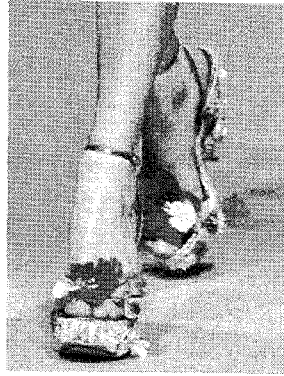
2. 맥시멀리즘(Maximalism) 이미지

맥시멀리즘은 1990년대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패션 디자이너들이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즘을 패션에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미니멀리즘이 축소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맥시멀리즘은 확대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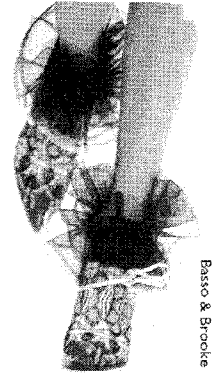
1990년대 대표적인 패션 경향이었던 미니멀리즘은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은 뉴밀레니엄에 대한 사회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낭만적이고 풍요로운 장식과 재미와 유머를 추구하는 요소들을 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에 몰입하였고 그 특징을 뉴밀레니엄 패션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⁵⁶⁾



〈그림 8〉 Christian dior,
2003-04 F/W, 동아TV
COLLECTION, 2003, p.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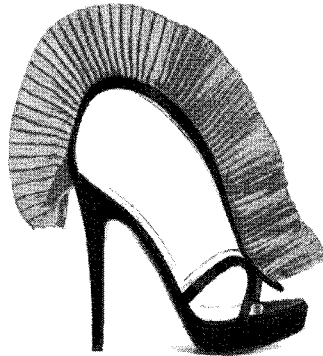
〈그림 9〉 Dolce & Gabbana,
2005 S/S, 동아TV
COLLECTION, 2004, p. 240



〈그림 10〉 Basso & Brooke
2006 S/S, FEM
COLLECTION, 2005, p. 252



〈그림 11〉 Sergio Rossi, 2008
S/S, <http://www.style.co.kr>



〈그림 12〉 Bruno Frisoni, 2009 F/W,
<http://www.style.co.kr>



〈그림 13〉 Nicholas Kirkwood, 2009 F/W,
<http://www.style.co.kr>

즉 꿈과 낭만 그리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들이 새천년 이후 현대패션에 공존함으로써 표면화된 어두운 세계의 이면에서 희망과 평화로움을 공유하는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조형성이 형성되었다. 맥시멀리즘은 패션의 경우 시대적인 흐름과 병행하여 인간의 수공예 기술로 정성껏 만들어진 제품에 호감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에서 시작하였다. 인공적인 느낌의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 보다는 거칠게 처리되고 손으로 스티치를 넣고 찢고 오려붙인 장식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맥시멀리즘 이미지는 구두에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패션 의류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장식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화려하게 구두를 치장하여 나타난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구두인 〈그림 8〉⁵⁷⁾ 크리스찬 디올의 구두 디자인과 〈그림 9〉⁵⁸⁾ 돌체 & 가바나(Dolce & Gabbana)의 구두 디자인 그리고 〈그림 10〉⁵⁹⁾ 바쏘 & 브룩(Basso & Brooke)의 구두 디자인을 보면, 의류에 주로 사용되었던 장식물인 코사지나 리본이나 구슬 장식 등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구두를 치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은 단색

으로 나타나지 않고, 핑크, 예로우, 레드 등 여러 가지 색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과장된 색조의 맥시멀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액세서리의 전성시대가 계속되면서 구두의 유행이 의상을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패션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디자이너들은 패션구두를 통해서도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패션구두를 앞 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그림 11〉⁶⁰⁾은 세르지오 로시(Sergio Rossi)의 구두 디자인으로 화려한 광택소재 조각으로 구성된 맥시멀리즘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그림 12〉⁶¹⁾은 브루노 프리소니(Bruno Frisoni)의 구두 디자인으로 구두의 발목 밴드의 장식에 핑크색 플리츠 새틴을 이용하여 장식함으로서 구두의 기능성보다 장식성을 위주로 제작하여 맥시멀리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⁶²⁾ 니콜라스 커크우드(Nicholas Kirkwood)의 구두 디자인은 발등을 덮은 부분이 공예품을 만들 때 문양을 파서 만드는 것과 같은 고급스러운 특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수공예품 같은 장식성을 띄고 있다. 또한 입체적인 보라색의 소재와 금속을 이용하여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이패션에 나타난 패션 구두에서 맥시멀리즘 이미지를 살펴보면, 실루엣은 샌들, 부츠, 웨지힐, 캐주얼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과장된 장식이 많아서 발목, 발등, 구두의 굽, 여밈 부위 등 거의 모든 곳에 장식이 달려 있어 과장된 실루엣을 볼 수 있다. 소재는 레이스, 리본, 플라워, 스팅글, 비즈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색은 핑크, 블랙, 골드, 옐로우 등 다양한 색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3. 귀족주의(Aristocratism) 이미지

귀족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소수의 선택된 특권층만이 가치 있는 것과 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태도로서 '예술 지상주의'에서 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예술의 기본적인 입장이 리얼리즘에 있다면 귀족주의 경향은 반리얼리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귀족주의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⁶³⁾ 문학에서 귀족주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만 존재 가치가 있는, 실체가 없는 정신일 뿐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주의란 세속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아닌 일부 소수만 가질 수 있는 우월감이나 차별화된 품격을 내포하고 있다.

21세기에 대한 희망과 불안은 소비에 대한 위축감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바로 의복 소비감소로 연결되었다. 실용적 가치판단에 눈을 뜨기 시작한 소비자들은 본질적인 실용주의, 기본에 충실한 상품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값싼 상품이 아닌 충분히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실용적인 명품주의, 귀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패션 아이템 중에서 구두는 패션 코디네이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아이템으로서 가시도가 높아 귀족주의 이미지를 강조하기에 가장 적절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두의 소재 및 장식기법을 통해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고, 복고적 느낌이 기교적인 수공예 감각과 함께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로 표현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귀족주의 이미지로 정의 하였다. 귀족주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소재의 사용과 수공예 기법의 사용으로, 주로 최고급천연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놓은 스티치, 자수, 여러 가지 천으로 이어붙인 패치워크 등 기법이 많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그림 14〉⁶⁴⁾ 지암바티스타 발리(Giambattista Valli)의 구두디자인과 〈그림 15〉⁶⁵⁾ 로저 비버(Roger Viver)의 구두 디자인은 최고급 수공예적 요소를 통해 귀족적인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림 16〉⁶⁶⁾ 돌체 & 가바나의 구두 디자인과 〈그림 17〉⁶⁷⁾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의 구두 디자인 그리고 〈그림 18〉⁶⁸⁾ 크리스찬 디올의 구두 디자인은 구두의 장식 소재로 귀결이나 목걸이 그리고 팔찌 등의 몸치장을 위한 장식구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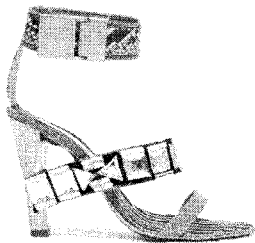
〈그림 14〉 Giambattista Valli,
2009 S/S.
<http://www.style.co.kr>



〈그림 15〉 Roger Vivier, 2009
S/S, <http://www.style.co.kr>



〈그림 16〉 Dolce &
Gabana, 2005-06 F/W,
<http://www.style.co.kr>



〈그림 17〉 Christian Lacroix,
2008 S/S,
<http://www.style.co.kr>



〈그림 18〉 Christian Dior,
2009 S/S,
<http://www.style.co.kr>



〈그림 19〉 Givenchy, 2008
S/S, <http://www.style.co.kr>



〈그림 20〉 Brian Atwood,
2009 f/w,
<http://www.style.co.kr>

소재로 쓰였던 보석·준보석, 금과 은 등의 메탈류의 재료가 모두 사용되어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귀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19〉⁶⁹⁾ 지방시(Givenchy)의 구두 디자인에 사용된 골드색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미래관을 이끌어 내게 함으로써 귀족적인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그림 20〉⁷⁰⁾은 브라이언 앳우드(Brian Atwood)의 구두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악어가죽의 입체적인 무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골드와 브라운색상으로 빛에 은은한 광택이 더하여 소재를 이용한 귀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이패션에 나타난 패션구두의 귀족주의의 이미지는 실루엣이 발의 모양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으며, 소재는 크리스탈, 진주, 상아 등의 보석류와 메탈 등을 사용하고, 색은 골드, 실버, 베이지, 바이올렛 등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하이패션에 나타난 패션구두의 조형성을 페티시즘 이미지, 맥시멀리즘 이미지, 귀족주의 이미지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V. 결론

2000년 이후 하이패션에서 부각된 패션 아이템 중 하나는 구두이다. 특히 하이패션의 완성도를 위해 디자인된 패션구두는 패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

〈표 3〉 21세기 하이패션의 패션구두 조형성

이미지		조형적 특징
페티시즘 이미지	· 구두의 높고 뾰족한 굽과 발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패션에 나타난 이미지.	· 실루엣 - 킬힐, 글래디에이터 슈즈, 스트랩을 변형한 형태, 레이스업한 스타일. · 소재 - 가죽, 메탈, 에나멜, 징, 스팅글 등. · 색 - 검정, 빨강을 주조색으로 핫핑크, 광택이 나는 다양한 색. · 장식 - 거친 지퍼의 금속 날, 날카로운 깨진 유리 등으로 변형하여 장식됨.
맥시멀리즘 이미지	· 구두의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패션 의류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장식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화려하게 구두를 치장하여 나타난 이미지.	· 실루엣 - 과장된 실루엣, 샌들, 부츠, 웨지힐, 캐주얼화 등 다양. · 소재 - 레이스, 리본, 플라워, 스팅글, 비즈 등. · 색 - 핑크, 블랙, 골드, 옐로우 등. · 장식 - 과장된 장식.
귀족주의 이미지	· 구두의 소재, 장식기법을 통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고, 복고풍과 기교적인 수공예 감각과 함께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로 표현된 이미지.	· 실루엣 - 발의 모양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 · 소재 - 최고급천연소재, 특수가공한 소재, 크리스탈, 진주, 상아 등의 보석류, 메탈. · 색 - 골드, 실버, 베이지, 바이올렛. · 장식 - 스티치, 자수, 패치 워크 등 수공예 기법.

한 패션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가지고 2000년 이후 하이패션에 나타나는 여성의 패션구두의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21세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패션 구두를 페티시즘 이미지, 맥시멀리즘 이미지, 귀족주의 이미지 등 세 가지의 조형적 이미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18세기 이후 등장한 페티시즘이미지는 특히 높고 스틸레토 힐과 발의 구속에서 느껴지는 에로틱함으로 인해 표출되고 있다. 하이힐은 여성미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과 구두는 에로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이패션에 나타난 패션 구두의 페티시즘 이미지를 살펴보면, 형태는 굽이 10cm가 넘는 킬힐과 송곳과 같이 뾰족하고 높은 스틸레토 힐 소재는 주로 가죽, 메탈, 에나멜, 징, 스팅글 등이 사용되었으며, 색은 검정, 빨강, 핫핑크 등을 주조색으로 광택이 나는 다양한 색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꿈과 낭만 그리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들이 새천년 이후 하이패션에 공존함으로써 희망

과 평화로움을 공유하는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조형성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구두 디자이너들 역시 그들의 디자인을 통해서 의복 장식물로 사용되는 다양한 장식을 과장되게 이용함으로써 꿈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패션구두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발목, 발등, 구두의 굽, 여밈 부위 등 거의 모든 곳에 달린 과장된 장식은 유머러스하면서 환상적인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21세기 들어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실용적인 명품주의와 귀족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패션구두에서도 귀족주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구두에서 귀족주의 이미지는 최고급 천연소재 사용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소박한 복고풍과 기교적인 수공예 감각과 함께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투박하고 편안한 이국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특히 소재는 크리스탈, 진주, 상아 등의 보석류와 메탈 등을 사용하고, 색은 골드, 실버, 베이지, 바이올렛 등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1세기 들어서 현대인들은 소박한 캐주얼차림에도

불구하고 구두 하나로 패션 감각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패션 아이템 중 자신만의 감정 표현을 여과없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액세서리는 구두라고 할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체형이나 스타일의 제약 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고 욕구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패션구두를 통해서 그들의 환상적인 꿈을 대리만족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심리가 내재되어 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킬힐과 같은 하이힐이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이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완성함에 있어서 패션구두에서도 의도적으로 기능적인 구두의 기능을 해체시킴으로써 인간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Laurie lawlor (1996). *Where will this shoe take you? : a walk through the history of footwear*. 임자경 역 (2002). *신발의 역사*. 도서출판 이지북. p. 67.
- 2) 위의 책, p. 117.
- 3) 박세은 (2004.3.11). 패션의 계절. 구두에 중독되다. 주간한국. 자료검색일 2009. 5. 12. 자료출처 <http://hankooki.com>
- 4) Bronwyn Cosgrave (2000). *The Complete History of Costume & Fashion*. Chekmark Book. p. 24.
- 5) 임자경 역. *앞의 책*, p. 24.
- 6) Bronwyn Cosgrave, *op. cit.*, p. 75.
- 7)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1982).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역 (2005). *세계패션사*. 간디서원, p. 92.
- 8) 위의 책, p. 121.
- 9) Bronwyn Cosgrave, *op. cit.*, p. 108.
- 10)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op. cit.*, p. 149.
- 11) Max von Boehn (1907-1925). *Die Mode*. 이재원 역 (2000). *패션의 역사(상)*. 한길아트. pp. 130-131.
- 12) 임자경 역. *앞의 책*, p. 90.
- 13) 이재원 역 (2000). *앞의 책*, pp. 130-131.
- 14) Bronwyn Cosgrave, *op. cit.*, p. 159.
- 15) Max von Boehn (1907-1925). *Die Mode*. 천미수 역 (2002). *패션의 역사(하)*. 한길아트. pp. 78-79.
- 16) 윤길순 역. *앞의 책*, p. 308.
- 17) 위의 책, p. 334.
- 18) Gertrud Lehnert (2003). *Schnellkurs Mode*. 박수진 역 (2005). *패션*. 예경, p. 107.
- 19) Adrian Baily (1988). *The Passion For Fashion*. Dragon's world. p. 48.
- 20)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1999). *20th Century Fashion*. Yale University Press, p. 51.
- 21) 박수진 역. *앞의 책*, p. 116.
- 22) Ingrid Loschk (2001). *Mode im 20. Jahrhundert : eine Kulturgeschichte unserer Zeit*. 이재원 역(200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20세기 패션문화사)*. 한길아트, p. 111.
- 23) 이재원 역 (2002). *앞의 책*, pp. 111-113.
- 24) Adrian Baily (2008). *The Passion For Fashion*. Toronto: McClelland & Stewart Ltd, p. 154.
- 25)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op. cit.*, p. 86.
- 26) Colin McDowell (1989). *SHOES*. London: Thames & Hudson, p. 178.
- 27) 이재원 역 (2002). *앞의 책*, p. 233.
- 28) Colin McDowell, *op. cit.*, p. 182.
- 29) Georgina O'Hara Callan (1988).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Thames & Hudson, p. 99.
- 30) 이재원 역 (2002). *앞의 책*, p. 252.
- 31) 김민자, 최현숙, 이현주 (2001). *서양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 I*. *복식*, 51(5), p. 170.
- 32) 이재원 역 (2002). *앞의 책*, p. 381.
- 33) Georgina O'Hara Callan, *op. cit.*, p. 72.
- 34) 윤길순 역. *앞의 책*, p. 506.
- 35)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op. cit.*, pp. 166-167.
- 36) Georgina O'Hara Callan, *op. cit.*, p. 234.
- 37) Kate Mulvey & Melissa Richard (1997). *DECADES of BEAUTY*. New York: Checkmark books, p. 186.
- 38) 이재원 역 (2002). *앞의 책*, p. 476.
- 39) Georgina O'Hara Callan, *op. cit.*, p. 75.
- 40)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op. cit.*, p. 263.
- 41) Colin McDowell, *op. cit.*, p. 202.
- 42) 스포츠한국, 2004.08.31
자료검색일 2005.7.2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ost/print/postprint.jsp](http://blog.naver.com/post/print/postprint.jsp)
- 43) 변미연, 이언영, 이인성 (2006).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페티시즘에 관한 페러다임.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p. 1064.
- 44) 위의 책, p. 1064.
- 45) Valerie Steele (1996). *Fetis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91.
- 46) Colin McDowell, *op. cit.*, p. 78.
- 47) 최재우 (2005. 11. 7). *FEM COLLECTION 2006 s/s*. vol. 18. modanews co. ltd., p. 252.
- 48) STYLE.COM KOREA. 2007-08 f/w Jean Paul Gaultier. 자료검색일 2009. 4. 9.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49) STYLE.COM KOREA. 2009 s/s Christian Dior. 자료검색일 2009. 7. 6.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50) Colin McDowell, *op. cit.*, p. 208.
- 51) STYLE.COM KOREA. 2007 s/s Balenciaga. 자료검색일 2009. 4. 9.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52) 이태형 (2007. 4. 9). *COLLECTION 2007-08 f/w*. (주)동아TV, p. 179.
- 53) STYLE.COM KOREA. 2007-08 f/w Christian Dior. 자료검색일 2009. 5. 21. 자료출처 <http://www.style.c>

- o.kr/
- 54) STYLE.COM KOREA. 2009 f/w Balmain. 자료검색
일 2009. 7. 6.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55) 이효진 (2003). 현대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11(2), p. 279.
 - 56) 위의 책, p. 276.
 - 57) 이태형 (2003. 4. 8). *COLLECTION 2003-04 f/w*.
(주)동아TV, p. 88.
 - 58) 이태형 (2004. 11. 11). *COLLECTION 2005 s/s*. (주)
동아TV, p. 240.
 - 59) 최재우. *앞의 책*, p. 252.
 - 60) STYLE.COM KOREA. 2008 s/s Sergio Rossi. 자료
검색일 2009. 5. 10.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61) STYLE.COM KOREA. 2009 f/w Bruno Frisoni. 자
료검색일 2009. 7. 6.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62) STYLE.COM KOREA. 2009 f/w Nicholas Kirkwood.
자료검색일 2009. 7. 6.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63) 두산 백과사전 (2009. 4. 10). 자료검색일 2009. 4. 7.
자료출처 <http://EnCyber & EnCyber.com>
 - 64) STYLE.COM KOREA. 2009 s/s Giambattista Valli.
자료검색일 2009. 7. 6.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65) STYLE.COM KOREA. 2009 s/s Roger Vivier. 자료
검색일 2009. 7. 6.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66) STYLE.COM KOREA. 2005-06 f/w Dolce & Gabana.
자료검색일 2009. 4. 9.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67) STYLE.COM KOREA. 2008s/s Christian Lacroix. 자
료검색일 2009. 5. 10.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68) STYLE.COM KOREA. 2009s/s Christian Dior. 자료
검색일 2009. 7. 6.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69) STYLE.COM KOREA. 2008 s/s Givenchy. 자료검색
일 2009. 5. 10.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 70) STYLE.COM KOREA. 2009 f/w Brian Atwood. 자
료검색일 2009. 7. 6.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